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

일국적 시야 넘어선 ‘동아시아학’, 역내 평화 조건 자국학 수립 모델, 학문 경쟁의 생존전략이기도

글_ 진재교 교수(성균관대 한문교육과, 동아시아학술원)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근대는 서구 주도로 진행되었다. 19세기말 20세기 초 근대전환기에 한국, 중국, 베트남을 위시한 일본은 서구의 ‘근대’ 기획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포섭되었다. 일본은 서구와 같은 제국의 모습으로, 한국, 중국, 베트남은 식민 내지 반식민의 모습으로 이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구의 근대 기획과 문명은 예외 없이 동아시아 각국의 자국민의 삶과 행동을 제도로서 규제하였고, 역내 각국 자국민은 이를 능동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점차 이를 체화하면서 대립과 어두운 상흔을 경험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서구 주도의 근대적 상황에서 발생한 한국, 중국, 베트남과 일본이 상호 주고받은 상흔은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특히 한국에서의 남북의 분단은 체제로 굳어지면서 그 어두운 상흔을 남기고 있다. 유럽 각국 역시 근대이후 대립과 반목의 충격을 체험하면서 다양한 과정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유럽은 E. U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진입하여 경제와 문화 정치제도의 단일화를 추구하는 마당이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각국에 남아 있는 상흔의 흔적,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해소시켜 나가는 것 또한 이 지역의 평화와 생존을 위한 주요한 담론이자 방식일 것이다.

지금 동아시아는 온전한 형태의 국민국가의 완성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역내의 상호 평화체제를 위해 나아가야 할 시점에 있다. 이런 화해의 마당에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많은 것이 민족주의적 장애물이다. 역내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학문하는 시각과 방법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동아시아를 하나의 유효한 시각으로 또는 학문 방법으로 거론할 수 있다. 학문을 위한 시야를 일국적 시야를 넘어 동아시아로 확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국적 전략, ‘지역학’ 구도 극복, 학제적 연구 지향

최근 동아시아의 담론과 화두는 다양한 양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문단위로 지역학의 모습으로 혹은 경제나 문화담론으로 부각된

다. 하지만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는 동아시아학은 기왕에 제시된 지역연구로서의 동아시아와 다른 방식의 학문 단위다. 동아시아학은 20세기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적 관점에서 비핵 구미지역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국적 전략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킨 지역학의 방법과 방향을 극복하는 데 있다. 이는 동아시아적 시각으로 역내 각국을 내재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유럽을 기반으로 한 학문 분류체계와 수입학의 폐단을 극복하는 것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학은 동아시아 지역의 과거 문화를 기반으로 현재의 대립과 반목을 뛰어 넘어 미래를 전망하는 유효한 학문적 방법이자 크게는 유효한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최근 ‘민족’과 일국적 시각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전환하기 위해서나, 대학에서의 학문 제도의 장벽을 넘어 새로운 대학 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동아시아의 화두와 대학제도 내에서의 동아시아학은 유효하다. 더욱이 동아시아학의 방향을 대학 제도와 접목시키면 이는 단순한 학제적 공분모를 넘어서는 화학적 융합을 요구한다. 이럴 때 동아시아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조적 역동성과 자기분열을 통해 부단한 자기발전을 성취할 것이다.

이제 동아시아학은 자국학의 수립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자, 예외 없이 밀려드는 학문적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유효한 생존전략으로, 또는 학문적 담론을 넘어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 위상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